**19. 미술관 즐기는 방법**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호기심 왕성한 어린이부터 박식한 분재 팬까지 다양한 감상자에 맞춘 다채로운 이벤트, 액티비티 특별전을 1년 내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중에는 영어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미술관 특별전으로 여름방학에 맞춰 어린이를 위한 분재 문화 전시도 개최됩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된 패널 전시는 분재 문화와 1,000년 이상 이어진 분재의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전은 분석(盆石, 돌과 흰모래로 만든 미니어처 풍경) 등의 테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는 한 달에 1번 개최되는 초보자를 위한 정기 분재 워크숍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재배 기초를 소개하고, 참가자에게 자신만의 계절 분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6세~15세까지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분재 팬이라면 오미야 분재 마을의 분재원 전문가한테서 더 자세히 배우는 클래스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과 클래스는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영어 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유카타 de 본비(분재 미술관)’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일본의 전통 의상 ‘유카타(여름용 간단한 기모노)’를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카타는 성인용만 무료 대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장에 상관 없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카타 de 본비’ 기간에는 딱 하루 클래식 음악 리사이틀도 진행됩니다.